

오피니언

월/요/광/장

전지용



요즈음 우리 주변에서 '공교육의 위기' 혹은 '인문학의 위기' 등의 표현을 흔히 보게 된다. 왜 이런 말들이 우리 사회를 짓누르게 되었는가?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을 터이니 여기에도 분명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물론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서양의 문화와 제도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것은 밖으로부터 들어온 이질적인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 근대의 역사가 동양 사회의 제도와 삶에 비합리적 요소들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 주었기에 지금 우리가 서양인의 것이라고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비합리적 행위이며 또 그런 식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다. 지금 나타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현재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자연법에서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이며 제일 순위라고 거론되는 개념이 생명권이다. 인간의 생명 즉 '생존'은 법에서도 철학에서도 절대적 명제라고 간주된다. 인간의 생존에 관한 문제를 능가하는 더 이상의 가치는 없으며, 인간이 공동체를 함께 구성했던 이유들 중에 생존이 절대적 순위를 차지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 생존을 도모했었고 지금은 어떤 방법이 제기되고 있는가? 사회계약설까지 들먹이지 않더라도, 생존이 공동체를 구성하게 했던 이유 중의 하나였다면 생존을 위한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 전적으로 개인들만의 책임으로 떠넘겨지는 것이 마땅한가? 물론 생존의 일차적 책임은 개인 각자에게 있었으나 개인들이 먼저 생존을 위한 방법을 찾고 습득해야 할 의무와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인간의 세계에서 왜 교육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은 사회 속에서 교육이 존재해야 할 이유나 의미를 묻고 있다. 원시시대의 성인들은 자신의 자식들에게 사냥 기술을 가르쳤을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동물의 세계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그 시대에는 거의 유일한 생존 방법이 사냥

밖에 없었을 테니까. 그러므로 그 시대에 아이들이 사냥 방법을 배운다는 것은 미래의 생존 수단을 습득한다는 것을 의미했다고 보아야 한다. 생존수단이 다양해지기 시작한 것은 고대의 문명이 나오면서부터였다. 사실 교육이 다양화되고 복잡해지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다. 농경과 상업 외에도 문자의 습득이나 전쟁 기술의 습득 그리고 다양한 예술적 기능 등이 새로운 생존 수단들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다양한 기술 혹은 지식은 동서양이나 시대에 따라 그것들의 가치가 다르게 평가되었고 그 평가의 차이가 서로 다른 문화를 만들었으며 그리고 서로 다른 사회 구조나 전통을 낳게 했다. 어느 틈에 인간의 역사는 '화폐'라는 구체적인 생존 수단을 만들게 되었고 시장경제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운용하는 사회로까지 발전했다. 이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동분서주해야만 하게 되었다. 그 래야만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엘빈 토플러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제 사회는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는 각종의 지식이 부의 기반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토플러가 맹목적인 부의 추구를 이

야기했을 리는 없다. 인간이 없는 지식이 파편처럼 부를 낳는다는 것을 그가 모를 리가 없기 때문이다. 토플러도 효율성을 최고의 미덕으로 강조하는 현대의 신자유주의를 어찌할 수 없었던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기하고 있지는 않다. 더 많은 지식의 습득이 더 유용한 생존 수단을 확보하게 해 준다면, 물론 교육의 일차적 의미로 제한된 것이지만, 교육은 사회 속의 개인들이 생존수단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기능 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교육의 기회가 공정하게 제공되어야 사회적 정의도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이 정의를 살려내고 있는가? 교육이란 공적 기구를 통해 부와 지위를 일종의 세습화하도록 만드는 일에 우리가 기여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인간이 배제된 파편처럼 부의 획득을 우리가 조장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사회적 유용성이 적은 사회일수록 그만큼 더 죽어간 사회라고 간주된다. 그 세습화 과정에 기여했다면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죽여가게 방조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이 일이 개인들에 의해 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었지만... (조선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교육이 위기라는데...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 칼럼

이영표



책바퀴 돌듯 돌아가던 삶에 약간의 희와 의 권태로움이 밀려들고 세상의 혼돈 속에 자신이 내던져졌다고 느낄 무렵, 노자(老子)는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고 세파(世波)를 건강하게 견디며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2,500여 년 전이나 되는 오랜 옛날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기존의 가치체계를 벗어나, 자연의 원리들에 대한 통찰 속에서 삶의 철학을 이끌어냈던 노자의 발상 전환이 놀랍고 신선했기 때문이다. 노자는 필자에게 기존의 가치체계를 발다른 여과 없이 학습해오지는 않았는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제도와 틀 안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만 끊임없이 경쟁해오지는 않았는지 진지하게 물었다.

상이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노자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자연을 벗 삼아 한가로이 살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연의 원리를 체득해 삶의 영역에서 부드럽고 견실하게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 더 노자의 말에 가까울 것이다. 자신의 존재이유를 상대방에서 찾으면서 '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자연과 더불어 공생하면서 자연의 존재형식으로부터 인간을 배우려 하였던 노자. 그는 진정 인간 사이의 상생, 나아가 자연과 인간의 상생을 꿈꿨던 분일 것이다. 노자의 생각이나 철학이 우리가 처해

기고

신상순



꿈! 꿈에서 깨어났다. 세계한글문자 해독연대가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결성되어 만세 삼창으로 끝을 맺은 게 꿈의 마지막이었다. 이번 결성식 참석자는 아프리카, 남미, 뉴기니 등 오지에 진출하여 글자 없는 종족들이 한글로 그들의 말을 표기할 수 있도록 가르친, 우리의 젊은이들과 한글로 자기들의 말 표기를 배운 원주민 지도자들이었다. 바야흐로 문자 없이 살아온 세계의 원주민들이 한글을 익혀 문명의 세계로 발돋움하게 된 것을 기리는 세계문화사상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올해 다시 국경일이 된 한글날이 끼여 있는 달이어서 이런 꿈을 곧 꿀까. 그

하늘은 날아보겠다는 꿈은 이카루스가 날개를 달고 태양 가까이 비행했다가 화염산에서 비롯돼 1903년 라이트 형제에 이르기까지 2천년이 걸렸다. 한글이 세계 각국에 넘실거리게 될 때까지 극복해야 할 걸림돌이 적지 않았다. 각국의 내셔널리즘이었다. 오지의 문맹종족을 관할하는 정부들이 한글 사절단의 입국을 꺼렸던 것이다. 그러나 이 예로는 세계 125만 국제로 타리안의 수장이 된 이동권 회장과 반기문 UN사무총장의 외교관들과 세계 로타리안들의 협력으로 해결됐다. 필요한 막대한 자금은 정부와 5만여 명의 한국 로타리안들이 담당하고 특히 국제로타리는 '한글로 문맹퇴치' 사업

한글로 세계문맹 퇴치하는 꿈

렇다면 한글을 바탕으로 문자 없는 종족들에 글쓰기를 가르치는 것이 한낱 잠꼬대일 뿐일까? 아니다, 성공할 희망이 있다. '훈민정음' 서문에서 세종대왕은 한글은 배우기 쉽다고 갈파했고, 세계의 석학들은 한글을 가장 과학적이며, 최고의 알파벳이고, 인류의 위대한 지적 업적이라고 극찬했다. 세계의 많은 문자체계 중 한글만이 창조적 연대, 창조자, 창조자의 철학적 배경이 분명한 것이다. 유네스코가 1989년 이래 문맹퇴치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게 '세종문자해독상'을 수여하고 1997년에는 '훈민정음'을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것은 당연하다. 이 훌륭한 문화유산을 한반도에 사장해 두어서 되겠는가! 오늘의 인류문명은 인류가 꿈을 가졌기에 가능했다.

을 새천년 정책사업으로 채택, 1985년 이래 4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했던 '소아마비 박멸 사업'에 이어 수행기로 했다. 인류역사는 많은 종족들의 불가사의한 흥망으로 점철돼 왔다. 동고의 초원을 박차고 나온 유목민들이 13~4세기에 중국과 유럽을 석권했고 스칸디나비아 어민들은 8~10세기 유럽연안과 영국을 점유했다. 또 식민지배에서 탈출한 자원 빈국 대한민국은 50년 만에 세계 11번째 경제대국이 되었다. 오지의 원주민들이 그대로 취생몽사(醉生夢死)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글로 계몽된 그들이 한국을 그들 개인(開眼)의 종주국으로 받들어 한글 한류(韓流)가 넘실거리게 한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겠는가. <광주 국제교류센터 상임고문>

다른나라의 축제 무조건 따라하기 옳지 않다

오는 31일이 '할로윈(halloween) 데이'라며 광주시 곳곳에 홍보 포스터가 붙어 있다. 영어 학원 등에서도 학원생들에게 할로윈 분장을 하고 오라거나 호박을 사오게 하는 등 요란하다. 호텔에서 할로윈 행사도 열린다고 한다. 할로윈(halloween)데이란 서양에서 매년 10월 31일 어린이들과 어른들간의 거리간격을 좁히기 위한 풍속잔치로, 어린이들이 이날이 오면 경쟁적으로 귀신이나 마녀처럼 무섭게 보이도록 치장을 하고 이웃을 방

문해 위협(?), 사탕이나 과자를 쟁긴다. 학생들이나 학원측 입장에서 보면 영어 공부를 하는 과정에 그 나라 문화를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유래도 확실치 않은 다른 나라의 축제를 무조건 따라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생각해보았으면 한다. 특히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지 의문이다. <전혜옥·광주시 동구 서석동

다시 노자(老子)를 생각하며

노자는 공(功)을 이루고도 그 공을 자신의 것으로 하지 않은 채 홀출 탈아버리고 표표히 떠나는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었다. 자신을 낮춤으로써 오히려 자신을 높일 수 있고, 비움으로써 오히려 채울 수 있다는 역설도 가르쳐 주었다. 노자는 필자에게 기존의 가치체계를 발다른 여과 없이 학습해오지는 않았는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제도와 틀 안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만 끊임없이 경쟁해오지는 않았는지 진지하게 물었다.

있는 여러 문제를 모두 풀어줄 수 없다 하더라도, 현대인들의 소의문제, 개발과 환경의 문제 등을 풀어나가는 데나, 이 땅의 지도자나 지식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 지에 관해 시사해주는 점이 적지 않다고 믿는다. 여유있는 의사의 길을 걷고 혁명가의 길을 스스로 택해, 혁명을 이룬 뒤 자신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홀연히 떠났던 '제 계바라' 역시 노자를 흠모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노자의 다음 글귀를 인용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사족(蛇足)이겠지만, 노자가 말하는 도(道)는 우리가 바라는 법(法)의 모습도 되지 않을가요.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고루 이롭게 하고서도 다투지 않는다. 그리고 못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기꺼이 처하나니, 그런 까닭에 거의 도에 가깝다"(上善若水 水善利萬物以不爭 處衆人之所惡 故幾於道). <변호사>

이벤트성 전시회 보단 차분한 전시회 됐으면

지난주 가을철 어린이 그림 전시회에 초등학생인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가 선물 때문에 전시회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전시장 입구에서 나눠주는 풍요를 받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도장을 받아오면 스케치북을 준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조용히 작품을 음미하며 아이들에게 미술 교육을 시키려던 당초 계획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전시장 분위기는 조금이라도 빨리 선물을

받기 위해 이리저리 왔다갔다하는 관람객들로 소란스럽고 어수선했다. 주최측은 전시장 곳곳을 돌며 다양한 작품을 접해 보라는 의도로 추진했겠지만 오히려 이같은 행사는 전시장 분위기를 망가뜨린 셈이다. 관람객들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전시회가 아닌 순수하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됐으면 했는데 아쉽다. <이주은·광주시 서구 마루동

시설

전남 농업 가능성 확인한 '농업박람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가 29일 성황리에 폐막됐다. 전남도가 '친환경 생명 농업 세계로! 미래로!'란 주제로 지난 24일부터 나누시 전남도농업기술원에 개최한 '제 5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 6일간의 행사기간 동안 65만여명이 다녀갔고 수출 계약 70억 원, 241억 원대의 판매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한다. 이번 농업박람회는 모두 18개 전시·판매관에 친환경 농특산물 600종 7만5천여 점을 전시, 한국 농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했고, 풍성한 친환경 농업 체험장을 마련해 자라나는 세대에게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등 대표적인 농업박람회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지역 친환경농산물을 선보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상품화하고 국내외 판로를 개척하는 성과를 거둬 제품을 단순히 전시하고 판매하는 일반 박람회와 차별성을 보인 점도 돋보였다.

우리 농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은 새삼스런 얘기가 아니지만 최근 FTA 등 시장개방 압력이 거세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위기상황이 불가피하다면 농업도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고부가가치의 농산물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객마케팅, 경쟁력 강화, 변화가 시급하다는 얘기가. 이번 점에서 이번 박람회는 전남농업의 기술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비전과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박람회는 관람객들이 모든 전시관을 한번에 돌아볼 수 있도록 박람회장 동선이 꾸며지지 못하는 등 아쉬움도 있었다. 특히 일부 전시관은 예산 부족 등으로 친환경 농업의 진수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박람회는 관람객들이 모든 전시관을 한번에 돌아볼 수 있도록 박람회장 동선이 꾸며지지 못하는 등 아쉬움도 있었다. 특히 일부 전시관은 예산 부족 등으로 친환경 농업의 진수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박람회는 관람객들이 모든 전시관을 한번에 돌아볼 수 있도록 박람회장 동선이 꾸며지지 못하는 등 아쉬움도 있었다. 특히 일부 전시관은 예산 부족 등으로 친환경 농업의 진수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외교안보라인 교체 국론결집 계기돼야

정부가 잇따라 사의를 표명한 통일, 외교, 국방장관과 국정원장 등 외교안보팀을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달 2일 교체키로 하고 후임자를 압축하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 처음으로 외교안보라인이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 이번 외교안보라인의 교체는 매우 중요하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반도를 둘러싸고 조성된 외교·안보환경은 최대의 위기상황이다. 국제사회에서 유엔의 대북제재결의가 본격화되고 있고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도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참여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도 풀어야 할 난제다. 반한 시기를 조정했지만 한-미간 이견이 너무 커 앞으로 수많은 협의가 필요하다. 면밀하고 철저한 준비가 없으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의 안보가 크게 위협받을 수도 있다. 외교안보라인의 전면교체는 한반도

의 위기상황을 풀어갈 수 있도록 국론을 통합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국론분열은 위험수위에 달해 있다. 정치권은 물론 사회단체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며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국정원장의 교체과정 등 정부의 대응도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며 국민의 불신과 비난을 받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코트인사' '회전문인사'의 반복이다. 노무현 대통령 특유의 인사 스타일이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는 마당에 구태를 되풀이해서는 치우칠 수 없는 사태를 맞을 수 있다. 국론은 더욱 분열되고 대통령과 정부의 신뢰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할 수 있다. 현실감각과 국제적 시선을 갖춘 유능한 인사의 발탁은 필수적이다. 새 외교안보팀의 최대 과제는 북한 핵실험 이후 조성된 한반도 위기상황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슬기롭게 극복해 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無等鼓

모든 것은 1952년 2월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열린 공화당 여성당원 대회에서 시작했다. 상원의원 조셉 R. 매카시가 연단 위에서 종이 한장을 흔들며 "국무성 내에 침투한 공산주의자 205명의 명단이다"고 소리쳤다. 명단의 실체도, 근거도 불분명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2차대전 종전 이후 시작된 냉전은 미국인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미국 사회는 미소간 대립과 동구 공산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급속히 우축으로 편향돼 갔다. 이 틀을 타고 나타난 사나이가 바로 매카시. 중서부 윈스톤 신 출신인 그는 밀워키의 작은 대학을 졸업했다. 권투를 즐겨했고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지만, 빈약한 출신 탓인지 본격적으로 진보적 엘리트들에 대한 분노를 안고 있었다. 명단 공개 이후 '반미활동조사위원회'의 의장에 취임한 그의 말 한마디면 누구도 온전하지 못했다. 그의 지론은 '공산주의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공산주의자'란 식이었다. 과학자 로젠버그 부부가 사형당하고 찰리 채플린이 쫓겨났다. 수천명의 공직자가 '빨갱이'란 누명을 쓰고 물러났다. 교사·교수들은 충성 서약을 해야 했다. 물라까지의 권이 채 걸리지 않았다. 미 상원은 1954년 12월 2일 65대 22로 매카시에 대한 비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2년 6개월 뒤인 1957년 5월 매카시는 쓸쓸히 죽었다. 불과 49세였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이 26일 6·15 축전이 열렸던 지난 6월 광주를 좌익에 점령된 '해방구'에 비유하는 발언을 했다. 사실 그의 색깔론적 발언은 상습범 수준이다. 어렵다. 권투를 즐겨했고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지만, 빈약한 출신 탓인지 본격적으로 진보적 엘리트들에 대한 분노를 안고 있었다. 명단 공개 이후 '반미활동조사위원회'의 의장에 취임한 그의 말 한마디면 누구도 온전하지 못했다. 그의 지론은 '공산주의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공

매카시와 김용갑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이 26일 6·15 축전이 열렸던 지난 6월 광주를 좌익에 점령된 '해방구'에 비유하는 발언을 했다. 사실 그의 색깔론적 발언은 상습범 수준이다. 어렵다. 권투를 즐겨했고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지만, 빈약한 출신 탓인지 본격적으로 진보적 엘리트들에 대한 분노를 안고 있었다. 명단 공개 이후 '반미활동조사위원회'의 의장에 취임한 그의 말 한마디면 누구도 온전하지 못했다. 그의 지론은 '공산주의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공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